

2023
대전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로 결과자료집

예술인 동반자사업

대전문화재단 

34944
대전 중구 중앙로 32 대전예술가의 집
T (042) 485-1045 F (042) 480-10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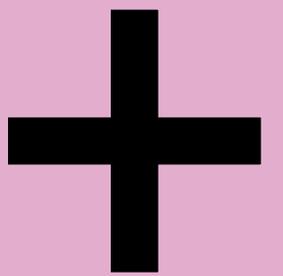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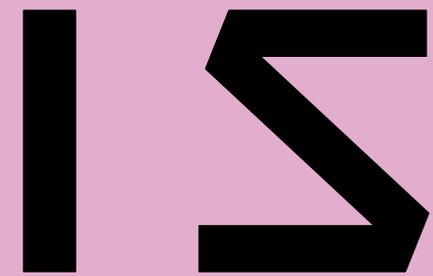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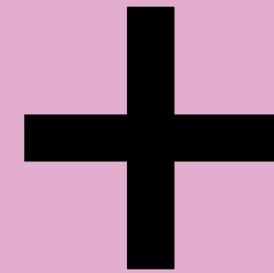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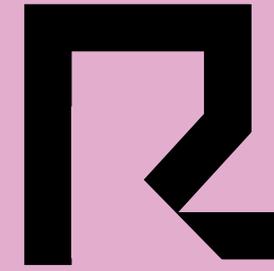
2023
대전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로 결과자료집

 문화체육관광부

 대전광역시
DAEJEON METROPOLITAN CITY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전문화재단 



예술인 동반자사업

① 예술인 동반자사업

② 사업 추진경과

③ 그룹별 협업활동

(1) 나는봄쉼터

(2) 대동종합사회복지관

(3) 대전문화예술네트워크협동조합

(4) 메가박스중앙(주) 대전지점

(5) 사단법인 대전충남생명의숲

(6) 한국과학기술원

예술인 동반자사업

사업소개

예술인 동반자사업은 기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주관하는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지역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예술인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예술인의 복지혜택 확산 및 지원사업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자 2020년 신설된 사업입니다.

심의를 통해 선정된 예술인과 기업·기관은 6개월 동안 예술인의 창의적 예술방식을 통해 기업·기관의 이슈를 해결하거나, 이전과는 다른 형식의 행사·공연·워크숍 등을 기획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계



사업연혁 2020 ~ 2023

2023

지역사업	나눔플랫폼	5명
	대동종합사회복지관	5명
	대전문화예술네트워크협동조합	5명
	메가박스중앙(주) 대전지점	5명
	사단법인 대전충남생명의숲	5명
	한국과학기술원	5명

2022

지역사업	대전가능영농조합법인	5명
	대전문화예술네트워크협동조합	5명
	우리누리	5명
	위드글로벌비아협회	5명
	협동조합 청춘학교	5명

2021

지역사업	대전가능영농조합법인	5명
	대전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5명
	우리누리	5명
	유성구정신건강복지센터	5명

2020

협업사업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5명
	한국생명공학연구원	5명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명

기획사업	대덕구정신건강복지센터	4명
	태평동마을배움터 상상마을	5명
	한국표준과학연구원	5명

기업 기관 21개소 예술인 104명

2월

(1) 모집공고 2. 27.(월) ~ 3. 20.(월)

- 예술인 30명(리더예술인 6명, 참여예술인 24명)
- 기업·기관 6개소

3월

(1) 사업설명회 3. 7.(화)

(2) 선정심의 <서류> 3. 28.(화) <면접> 3. 31.(금)

- 리더예술인 28명 지원
- 참여예술인 89명 지원
- 기업·기관 20개소 지원

4월

(1) 매칭데이 4. 21.(금)

- 매칭현황

기업·기관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1 나는봄쉼터	한선덕	유소연, 이원희, 임황건, 장은숙
2 대동종합사회복지관	김태훈	송민경, 이새로미, 장원모, 채송화
3 대전문화예술네트워크협동조합	남명욱	강철규, 고애니, 임한솔, 정진용
4 메가박스중앙(주) 대전지점	이경희	권은경, 이보현, 이다슬, 전지현
5 사단법인 대전충남생명의숲	정우순	김진희, 송재형, 이우진, 조현하
6 한국과학기술원	안현준	김민정, 김영진, 김채원, 최정훈



5월

(2) 사전간담회 4. 28.(금)

(1) 모니터링 5. 16.(화) ~ 5. 26.(금)

6월

(1) 1차 컨설팅 6. 16.(금) ~ 7. 4.(화)

기업·기관	컨설턴트
1 나는봄쉼터	이인원(대전여성장애인연대 소장)
2 대동종합사회복지관	조정실(해맑음센터 대표)
3 대전문화예술네트워크협동조합	정수영(대전MBC 라디오 작가)
4 메가박스중앙(주) 대전지점	윤혜주(대전농아인협회 사무처장)
5 사단법인 대전충남생명의숲	고승현(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운영위원장)
6 한국과학기술원	김태희(메타버스 컨설턴트)



나는봄쉼터



대동종합사회복지관



대전문화예술네트워크협동조합



메가박스중앙(주) 대전지점



사단법인 대전충남생명의숲



한국과학기술원

(2) 리더예술인 간담회 개최 6. 30.(금)



(3) 모니터링 6. 14.(수) ~ 6. 29.(목)

7월

(1) 기업·기관 담당자 간담회 개최 7. 24.(월)



(2) 모니터링 7. 7.(금) ~ 7. 27.(목)

8월

(1) 네트워크간담회 개최 8. 22.(화)



(2) 2차 컨설팅 8. 8.(화) ~ 9. 8.(금)

기업·기관	컨설턴트
1 대동종합사회복지관	김복수(충남도립미술관 학예사)
2 대전문화예술네트워크협동조합	정수영(대전MBC 라디오 작가)
3 메가박스중앙(주) 대전지점	유슬기(코다코리아 운영위원)
4 사단법인 대전충남생명의숲	강수희(생태예술창작그룹 시티애즈네이처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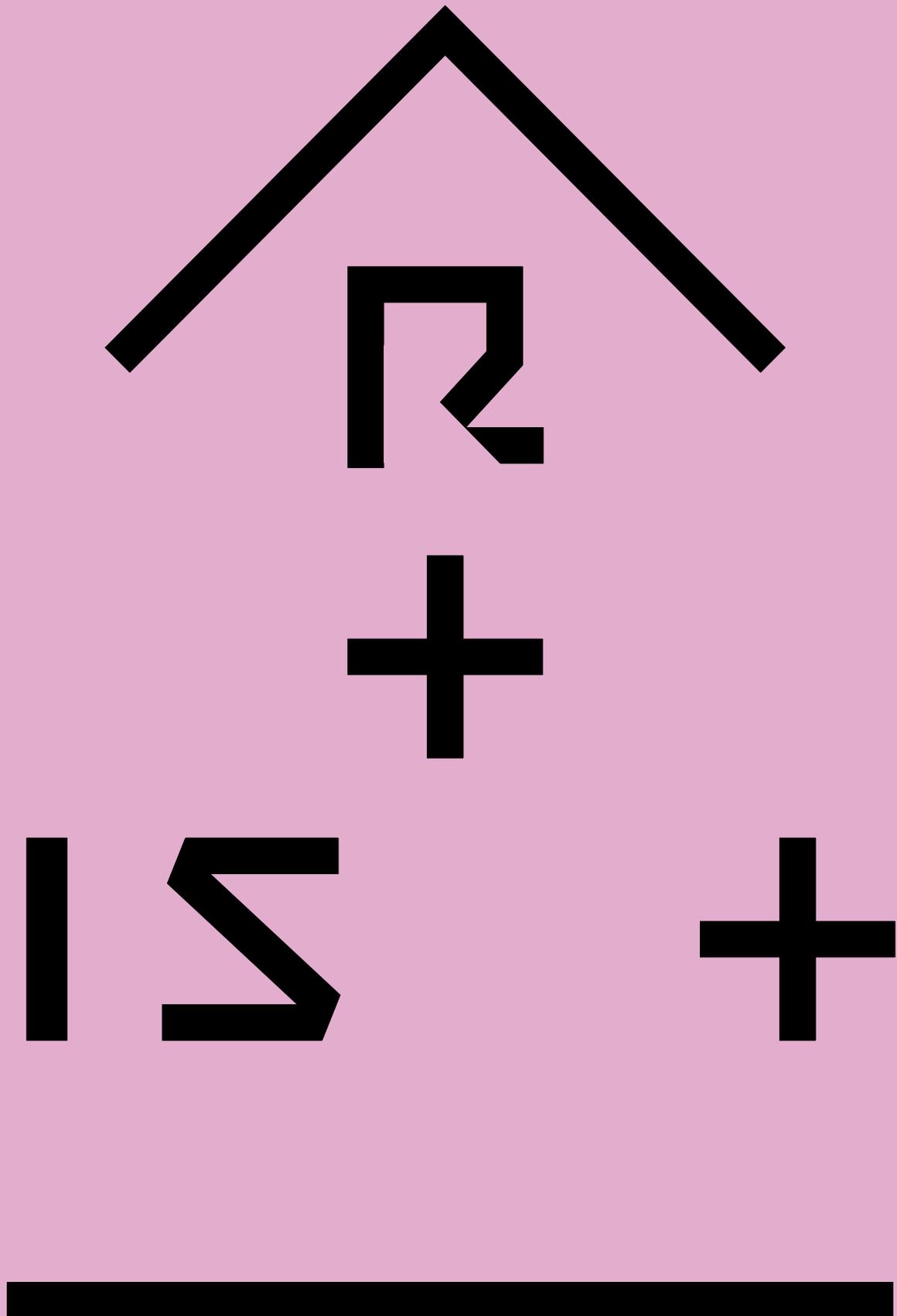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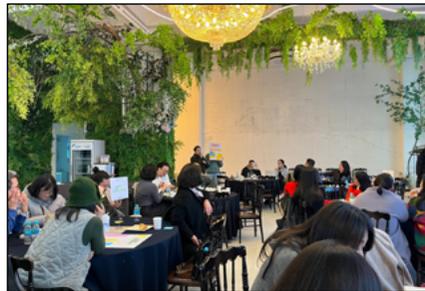
(3) 모니터링 8. 4.(금) ~ 8. 29.(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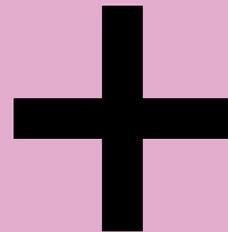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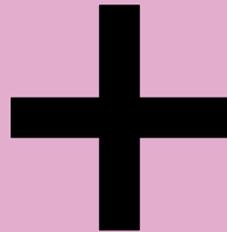
9월

모니터링 9. 8.(금) ~ 9. 27.(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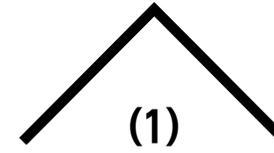
10월

모니터링 10. 6.(금) ~ 10. 30.(월)





- (1) 나는봄쉼터
- (2) 대동종합사회복지관
- (3) 대전문화예술네트워크협동조합
- (4) 메가박스중앙(주) 대전지점
- (5) 사단법인 대전충남생명의숲
- (6) 한국과학기술원



+ 활동유형 공연기획, 문화예술교육

+ 기관소개

나는봄은 '알겠어, 이해했어(I'm seeing)'의 의미로 나는봄을 통해 친족성폭력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피해의 아픔을 겪은 한 생명이 봄에 피는 새싹, 숲속에서 힘차게 흘러나오는 샘물과 같이 새로운 삶에 용기 있게 다시 뛰어드는 힘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의미(I'm a spring)를 뜻합니다. 2014년에 개소하여 정원 16명의 청소년들이 공동생활가정을 이뤄 생활하는 곳으로써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전공을 중심으로 진로 및 취업 지도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다시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예술인소개

연극 **한선덕 리더예술인** 극단 새벽 대표로 연출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음악 **유소연 참여예술인** 온기의 대표로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 **이원희 참여예술인** 루나 아트 컴퍼니의 대표이자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극 **임항건 참여예술인** 극단 나무시어터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연출가이자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극 **장은숙 참여예술인** 배우이자 칼럼니스트, 드라마트루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기관의 이슈(고민)

SEAL(Social and Emotionl Aspects of Learning)은 쉼터의 치유 목표입니다. 연극을 통해 청소년들의 자기인식(self-awareness), 감정다루기(mange-feeling), 동기(motivation), 공감(empathy),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이라는 목표에 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자기효능감과 긍정적 사고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예술치료를 통해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 심어주기

협업활동 전,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아이들과 친해지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을 가진 후, 함께 할 활동을 설명하며
천천히 다가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색종이에 마음을 담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며 감정의 모양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음악 <꿈꾸지 않으면>을 감상하고, 아이들의 희망과 의지를 담을 수 있도록
직접 불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극 '오즈의 마법사'



연극 <오즈의 마법사> 배역을 정하기 위해 센터 아이들 대상으로 오디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각자 원하는 도로시, 허수아비 등 배역의 지정대사와 노래를 준비하였고,
예술인들은 연기력, 캐릭터와 이미지의 적절성, 가창력 등의 심사를 통해 배역을 분배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천천히 다가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작품에 녹여낼 수 있도록
작사를 진행했으며, 가창 연습을 위해
매주 센터에 방문하여 코칭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연극 당일 사운드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
직접 스튜디오에 방문하여 아이들의 목소리를
MR로 제작하였습니다.





연극을 준비하기 앞서 아이들과 함께 캐릭터를 분석하고 대본리딩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점층적 글 읽기와 자기표현을 할 수 있도록 감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단순한 읽기가 아닌 각자 인물의 특성에 맞는 감정 표현법을 알려주며 상대방의 감정과 같은 호흡을 맞추어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용기, 희망, 꿈에 대한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울동을 넣은 안무를 제작하였습니다.



활동 수기

한선덕 (리더예술인)

이번 예술로에서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체험 및 발표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지도 초반에는 지적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대본을 읽기조차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반복을 통해 대본에 익숙해지고, 안무를 서서히 익혀가는 과정을 보면서 작은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연습을 통해 조금씩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소중함을 깨달아가는 모습을 보고 예술의 긍정적인 영향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유소연 (참여예술인)

예술로에서 참여예술인으로, 씬터 내 청소년들에게는 선생님에 조금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알고 있다고 덕분에 아이들에게 선생님이로 불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 길지도 짧지도 않은 6개월의 시간 동안 아이들의 성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리딩공연이라는 긴 완주를 건강하게 마치는 데 도움을 주셨던 씬터 담당자 선생님들, 예술인 선생님들, 재단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원희 (참여예술인)

이번 활동에서는 연극에서 아이들이 부를 수 있는 동요와 클래식을 작곡하였습니다. 예술로에 참여했던 6개월의 시간 동안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서 무대를 만들고자 서로 의기투합했던 모든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임황건 (참여예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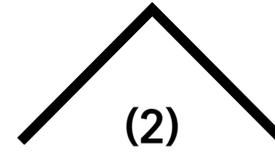
3년째 참여예술인으로 참여했지만, 올해 예술인 동반자사업은 조금 더 특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관의 청소년들은 각자 조금의 사연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저 아이들을 좋아하고 꾸미기에 관심 있는 평범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 학생들과 6개월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며 제가 더 자극이 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훗날 기회가 된다면 아이들과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장은숙 (참여예술인)

성폭력 피해 및 중복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과의 첫 만남은 어색했고, 어떻게 공연을 이끌어 갈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예술인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급지적 장애인 한 학생이 그 누구보다 빠르게 대본을 다 외우고 와서 열심히 참여한 모습 또한 감동으로 와 닿았습니다. 며칠 후 아이들과 함께 공연을 올립니다. 벌써부터 참여 학생들의 멋진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여수연 (기관 담당자)

초기 만남 때는 워밍업과 연극과 뮤지컬의 기초를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이후 전문배우들이 보는 것처럼 오디션을 거쳐 각자에게 맞는 배역을 받았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구분 없이 하나가 되는 시간을 보내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연극치료가 아이들에게 끼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학업과 병행하고 시험기간이 겹칠 텐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예술인들을 만나는 날이면 일찍부터 연습장소에 내려와 그날 할 것을 먼저 연습하곤 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내재된 분노를 연극을 통해 건강하게 분출할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예술인들이 오히려 피해자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기획과 대본 및 작곡과 춤을 기획한다는 자체가 참으로 신선한 발상이고,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를 실무를 맡으면서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동종합사회복지관

+ 활동유형 콘텐츠 기획, 지역 공동체

+ 기관소개

1994년에 개관하여 운영법인 '평화의 마을'이 지향하는 생명, 평화 정신을 사랑으로 지역사회에 실천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말씀을 귀하게 듣고 함께 지역복지 공동체를 실천하는 전문사회복지기관입니다.

+ 예술인소개

미술 김태훈 **리더예술인** 미디어·설치 작업 위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화 송민경 **참여예술인** 만화가로 애니메이션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극 이새로미 **참여예술인** 연극 연출가 및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술 장원모 **참여예술인** 조각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극 채송화 **참여예술인** 엠아트플라이의 대표이자 뮤지컬 배우 및 연출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기관의 이슈(고민)

학교폭력 웹드라마를 제작하여 아이들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을 동시에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자기통제력과 리더십을 향상하며 또래 간의 관계를 증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들과 예술인들이 함께 모자이크 타일로 작품을 만들고 기관에 전시하여 기관에 방문하는 주민들의 흥미와 정서를 향상하고자 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웹드라마 제작



대동 외 7개 지역의 아동 14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5%가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당하는 모습을 방임하였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 웹드라마를 제작하여 아이들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을 동시에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지역 아동센터에 소속된 청소년 중 연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술인들이 직접 오디션을 심사한 후,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배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연극 분야의 예술인들은 매주 아이들과 함께 대본리딩을 진행하며 연기를 꾸준히 지도하였습니다. 연극 외 분야의 예술인들도 소품 제작 등에 참여하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Title : 스페셜 게스트 복학생 k Conti: 송민경 3.

Cut	Video	Context	Text
11		원관으로 이동(전체)	
12		웅. 원관문 닫히는 소리	
13		소밍백 클로즈업	
14		원 전환	
15		-동교선- 연우통교출발	

Title : 스페셜 게스트 복학생 k Conti: 송민경 10.

Cut	Video	Context	Text
46		머리를 땀땀 치며 괴롱하는 영지	000 운동화 왜 안 갖고 왔나? 운동화 2개 가져와
47		반항하는 연우	싫어. 안 가져와. 그리고 너네도 그만 하는 게 좋을거야
48		비웃는 가해자들	영지야~ 애 먹었네~ 복학생이랑 놀다니 너도 맛이 간 거야?
49		문을 쾅 차고 들어오는	
50		떨릿 등장	백달 왔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의 현실감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였고, 이해를 도울 콘티를 제작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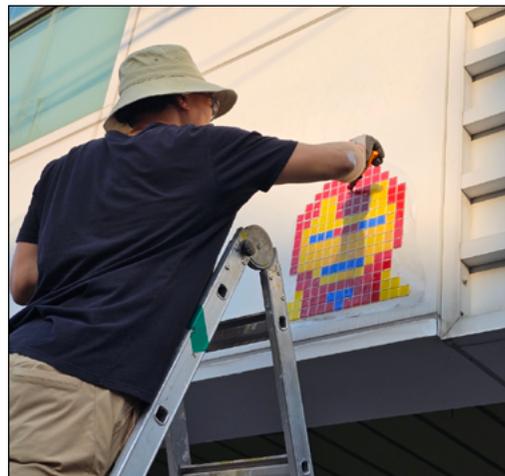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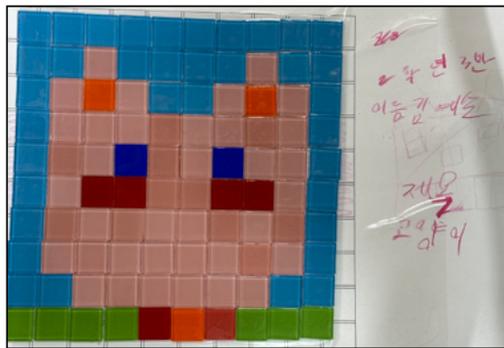


모자이크 타일아트

복지관에서 희망했던 활동 중 하나는 벽화제작이었으나, 최근 벽화제작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가 있어 기관과 예술인들은 여러 번의 대화를 통해 주제를 변경했습니다. 예술인이 없어도 지속 가능한 분야의 작업, 작업의 완성도, 한정된 제작비 등을 고려하여 '모자이크 타일아트' 제작에 의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후, 인근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타일아트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타일을 끼울 수 있는 키트 형식의 틀을 제작하여 향후 협업활동이 끝나더라도 작품의 퀄리티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으며, 기관에 작품 제작 과정을 인계하였습니다.



활동 후기

김태훈 (리더예술인)

처음으로 리더예술인으로 참여한 한 해였습니다. 제가 리더로서 출발하고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생각해 보면 개인마다 역할에 대한 기준이 다르겠다는 결론에 닿습니다. 개개인의 역량과 기관의 니즈, 그 중간 지점을 파악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함께 잡아가는 것이 리더 역할의 전부라고 생각하였으나 사람사이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 그것의 증재 혹은 해결 등에 리더가 관여해야하는 부분이 많았고 그 부분에 에너지나 시간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된 부분이 내년 혹은 후년에도 이어져나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민경 (참여예술인)

시작은 더딘데 언제나 끝은 성큼입니다.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 기관이 예술로 만나 협업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술로의 방향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프로젝트의 결과물보다는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좀 더 예술로 자유로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프로젝트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좀 더 유연한 사고로 넘쳐나는 예술협업모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새로미 (참여예술인)

6개월의 예술인 동반자사업을 통해 서류 교류하지 못했던 여러 분야의 예술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웹드라마를 제작하는 데 힘쓰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들을 알아가면서 발전할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장르를 폭 넓고 가치 있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6개월 동안 함께 해준 예술인들과 많은 교류를 통해 많은 답사와 열정으로 웹드라마라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제 전공 분야가 아닌 공공미술에 대한 전반적인 일들도 함께 하며 많은 것을 습득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기관 및 함께 활동한 예술인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원모 (참여예술인)

6개월 간의 예술로 활동은 조각가로서의 여러 활동 중 가장 뜻깊은 활동이지 아니었나 싶습니다. 새로운 예술인들과 매번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고충을 나누며 다양한 창작활동을 위한 크리에이티브한 생각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분야의 예술인들과 대화하는 것만큼 큰 영감을 주는 부분은 없기에 예술로 사업은 늘 새로운 도전을 불러일으키는 부푼 기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활동은 조각가로서 저의 작업들을 활용하여 공공미술 관련 다양한 방식과 제안을 생각할 수 있는 장이었습니다. 또한, 영상이 탄생해 가는 과정과 구조를 이해하며 저의 작업 속에서 영상이라는 아이템의 활용에 관한 많은 영감을 낳았습니다.

채송화 (참여예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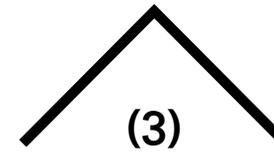
워킹맘으로서 그리고 하나의 참여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초반에는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예술인들이 만나 기관과 사업 방향성에 대해 소통을 하느라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예술인들의 성향과 그동안 해온 작업 방식이 다르기에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면도 있었습니다. 소통의 부재로 쌓인 오해가 있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술인들이 가진 목적은 분명했기에 서로가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며 마무리까지 잘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웹드라마 및 모자이크 타일 제작 모두 잘 마무리가 되어 참으로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비슷한 작업을 해온 예술인들과 협업을 진행하다면 더 좋은 성과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찬민 (기관 담당자)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과 협업활동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더욱 전문적으로 준비하고 수준이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 뿌듯합니다. 프로젝트의 주제는 영상이었지만, 작가 예술가는 시나리오와 콘티를 제작하고, 조각 예술가는 소품을 준비하고, 연기 예술가는 연습지도를 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의 가치관과 성향을 공감 및 이해하고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 대전문화예술네트워크협동조합

+ 활동유형 콘텐츠 기획, 아카이빙

+ 기관소개

대전 지역 문화예술 관련 저변확대와 발전을 도모하여 문화예술 관련 사업자 및 대전 예술인들의 권익신장과 조합원 간의 복리증진, 상부상조 그리고 지역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 시민들에게 지역의 문화예술인을 소개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문화예술 환경을 바꾸어 나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예술인소개

연극 남명옥 리더예술인 연극하는 일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30년 차 연극인입니다.

미술 강철규 참여예술인 시각 분야 개인창작자로 회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악 고애니 참여예술인 참아트컴퍼니의 대표이자 국악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술 임한솔 참여예술인 시각예술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용 정진용 참여예술인 전통춤과 창작품을 전공하여 연출가 및 무대감독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기관의 이슈(고민)

지역 예술인들을 매개체로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가능한 팀의 예술로 협업 프로젝트 <판>



첫 프로젝트는 기업과 연계된 한밭FM에서 송출할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관이 위치한 중앙시장의 전통성과 그 의미에 대해 알고자 하였습니다. 중앙시장 곳곳을 탐방하여 상인 인터뷰를 진행하며 라디오 원고에 필요한 내용을 조사하였습니다.



하지만, 협업 중간에 기관의 요구로 '디캔센터 유튜브 콘텐츠 제작'으로 프로그램 방향이 전환되어, 예술인들은 유튜브 프로그램을 기획하였고, 기관에서는 녹화 및 편집 등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하였습니다.

방송 작가님과의 컨설팅을 통해 피드백을 받아 프로그램 원고와 큐시트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오프닝을 위한 가야금 연주를 진행하였고, 촬영을 위한 조명과 영상, 음향 등 무대세트를 연출하였습니다.



총 3번의 촬영을 통해 4회 차 분량의 콘텐츠를 제작하며, '중앙시장', '예술로 사업', '예술인 이야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각 주제별 세부 프로그램에 오락성을 더하기 위해 러시안룰렛인 돌림판을 사용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의 이름의 '판'은 여기서 따온 것입니다.



#예술인동반자사업 #지역예술생태계
#예술인복지 #예술인들의사적인취미 #중앙시장



고애니의 국악방송

협업과정에서 협력한 한밭FM에서 고애니의 국악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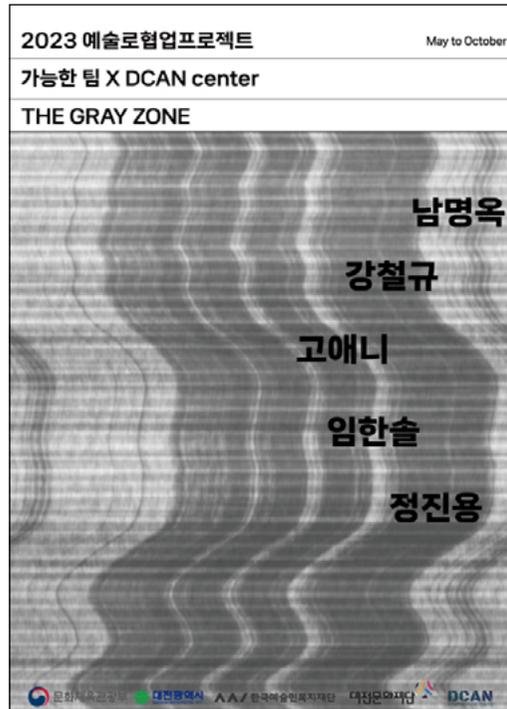


대전·충남 지역의 국악인과 그들의 음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국악의 역사와 문화적인 가치를 알고자 하였습니다. 리더예술인 남명옥의 오프닝을 시작으로 참여예술인 고애니가 프로그램의 원고와 진행을 맡았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사업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레이 존 (The Gray Zone)

마지막으로, 6개월 간의 협업활동을 되돌아보며 예술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예술인들이 느꼈던 점과 예술로 사업의 의미를 되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물을 토대로 페이퍼 '그레이 존'을 제작하였습니다. 미술-공연(국악, 무용, 연극) 파트의 만남, 미술에서의 전시 공간인 화이트큐브와 공연 공간인 블랙큐브의 중간 영역인 회색의 공간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기획하였습니다.



활동 후기

남명옥 (리더예술인)

지난 6개월간 기관과 함께 국악, 무용, 시각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어서 매우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시각 분야의 청년 작가 두 분과의 만남은 저를 포함하여 공연 분야에서 긴 세월을 보낸 다른 예술인들에게도 신선한 자극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로 사업 안에서 다른 예술가와의 만남은 때때로 협업뿐만 아니라 예술가의 삶에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청년 작가 두 분의 작업을 주목하고, 향후 저의 예술 작업에도 협업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또, 협업 과정에 있어 기업과 예술인, 예술인 간의 문제나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술가 간의 신뢰와 성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로 파견지원사업이 앞으로도 예술가들에게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강철규 (참여예술인)

대체로 시각예술 분야 활동은 독립적이며 고립된 성향이 짙습니다. 이는 작가들이 사회적 활동의 시각에 위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론 이러한 특징 또는 현상이 작업 몰입에 필수적이거나 관계적 사회성을 고려한다면 특징이 아닌 주의사항으로 치환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본 사업에 참여하며 사회적 활동에서 시각 예술가가 겪는 양면성을 경험했습니다. 때론 예술로 사업에 시간을 투자하면서 개인 작업 비중이 낮아져 스트레스를 받기도, 때론 예술로 사업에 참여하며 고민이나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예술로 사업의 참여가 아닌 함께 협업하는 팀원들의 영향력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래의 예술가로부터 유대와 위로를, 선배 예술가로부터 선행 사례와 격려를 받으며 다시금 예술가로서 삶을 이어갈 힘을 받습니다. 이것이 예술로 사업의 본질적인 의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활동 중 개인적인 일로 인해 팀원에게 죄송하고 많이들 위로를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전달드립니다. 첫 예술로 사업 활동에서 좋은 사람들, 좋은 예술가들을 만나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고애니 (참여예술인)

연주자들은 연주회를 앞두고 매회 같은 연주곡을 반복하며 함께 호흡을 맞춥니다. 반복되는 연습을 통하여 더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고자 노력을 하지요. 예술로 동반자 사업은, 생동감을 느끼게 해 줍니다. 매달, 혹은 매주 참신한 주제를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 의논하며, 예술인들과 매우 다양한 소통을 합니다. 예술로 동반자 사업은 새롭습니다.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는 어떤 한 영화의 명대사처럼 '지금까지 이런 것은 없었다.' 우리의 결과물은 생생하고 산뜻합니다. 예술로 동반자 사업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예술인들이 의기투합하여,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의 프로젝트가 살아있다는 것을 단 한 분에게라도 알렸으면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협업에 참석한다는 것만으로도 살아있다는 느낌입니다. 저는 이 사업이 참 좋습니다.

임한솔 (참여예술인)

주로 혼자서 작업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저로서, 예술로 사업이 아니었으면 인연이 닿지 못했을 다른 분야의 선생님들과의 시간이 참 뜻깊었습니다. 무엇보다, 각 분야에서 이미 대단하신 분들과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영광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내성적인 성향이지만 그럼에도 기다려주시고, 늘 이끌어주시고, 모든 것을 포용해 주신 리더예술인과 항상 즐겁고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던 참여예술인 선생님을 덕분에 협업기간은 제게 행복 그 자체의 날들이었습니다. 또 이분들을 통해서, 협업의 즐거움을 처음으로 깨닫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성장이 있었고,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연극 남명옥 선생님, 무용 정진용 선생님, 국악 고애니 선생님 그리고 같은 시각 분야 강철규 선생님과 인연은 어쩌면 꽤 오랫동안 잊을 수 없는 벽차고도 감사한 분들로 남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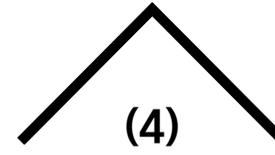
정진용 (참여예술인)

30여 년을 무용계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 및 콜라보를 비롯하여 국내외의 수많은 콘서트와 장소 등에서도 예술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기업과 함께 동반자라는 타이틀로 새롭게 다가온 예술로 사업은 보다 신선하고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했습니다. 실연이 목적이 아닌 기업이 추구하는 문화적 가치의 확산을 동반자로서 함께 고민해 보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중앙시장 이야기를 시작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중앙시장 안에 위치한 디센터의 공간 활용 방안 등 다양한 현안을 중점으로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예술인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현안 등을 준비했습니다. 방송작가님의 컨설팅을 받으면서 라디오 방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튜브 방송을 제작하고 송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시작부터 기업의 목표가 변경되어 집중력 있는 현안 해결에는 도달하지 못하여 아쉽기도 합니다.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과 협업하면서 '우리는 예술인이다.'라는 자부심이 커지면서 추후의 예술활동에도 새로운 영향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좋은 사업, 좋은 예술인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선 (기관 담당자)

기관과 예술인이 결합하여 예술인만이 지닌 독특한 창의성을 바탕으로 기관의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기관 담당자로서 리더, 참여예술인들과 함께 예술협업활동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다음번에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뵙고 싶습니다. 6개월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메가박스중앙(주) 대전지점

+ 활동유형 공연기획, 전시기획, 홍보·홍보물

+ 기업소개

메가박스는 대한민국 최대의 종합미디어 그룹인 중앙그룹의 계열사로 "공감, 창조, 재미"를 핵심가치로 운영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영화 플랫폼입니다. 지난 2018년 전국 100호점을 오픈하고, 2020년 20주년을 맞이하며 국내 최초로 DOLBY CINEMA를 오픈하여 관객들에게 최상의 상영관에서의 콘텐츠 경험 기회를 제공하며 많은 고객들의 메이저 상영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예술인소개

미술 **이경희 리더예술인** 시각예술작가로 회화·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악 **권은경 참여예술인** 대전판소리고법보존회의 대표로 판소리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학 **이보현 참여예술인** 생활인으로서 지나온 경험을 글로 쓰는 작가입니다.

무용 **이다슬 참여예술인** 워킹댄서로 창작 및 퍼포먼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 **전지현 참여예술인** 문화기획엔티에스 대표로 도예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기업의 이슈(고민)

메가박스는 단순 영화 사업을 넘어 영화 콘텐츠를 통한 국내외 사회공헌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글자막 화면해설 콘텐츠로 시청각장애인들이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베리어프리 영화 서비스와 예술인들의 협업을 통하여 시청각장애인들에게 영화 관람을 넘어 다양한 활동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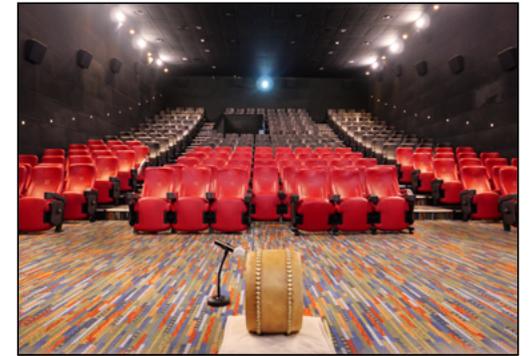
선선해지고, 바람 불고, 눈 내리고

기존 메가박스에서는 시청각장애인들이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기존 영화에 대사와 효과음 등을 자막으로 표기하고 화면해설 및 상황을 설명하는 음성을 넣는 <가치봄> 배리어프리영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영회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예술인들의 전공을 살린 공연과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예술인들은 프로그램이 놓치고 있는 계절·기후·풍경 등의 다중감각을 체험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름에서 시작해 가을을 지나, 눈 내리는 겨울 그리고 다시 봄이 찾아오는 <선선해지고, 바람 불고, 눈 내리고>라는 콘셉트를 선정하였습니다.



공연



계절의 변화를 소리북의 진동과 움직임이 화려한 왁킹댄스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였고, 영화관 스크린을 활용하여 제작한 드로잉과 영상을 상영하였습니다.

늦여름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가을바람의 '나뭇잎이 떨어진다' 등을 스크린으로 상영하며 연주자는 메시지에 맞는 소리북을 연주하고, 안무가는 춤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표현하였습니다. 동시에 다른 예술인들은 영상 컨트롤, 조명 오퍼, 메시지 보이스 등 테크니션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리플릿 등 안내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전시

예술인들이 준비한 공연과 가치봄 상영회가 끝난 뒤, 메가박스 대전점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기획 전시를 관람토록 하였습니다. 기획한 전시는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약 1개월 동안 운영하며 시민들도 관람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습니다.



- 손으로 읽자
관람한 가치봄 상영 영화 <더문> 및 그 외 한국영화 명대사를 수어로 번역한 후, 유리창 위에 시트지를 입혀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으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시청각장애인들의 효과적인 이해를 위해 QR코드를 활용하여 수어 영상과 점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정확한 수어 번역을 위해 손소리복지관 및 컨설팅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았습니다.

- 예술로 놀자
다양한 감각을 느낄 수 있는 '함께 만드는 영화 포스터' 체험 전시도 기획하였습니다. 비긴어게인, 러브레터, 더문 등 주제와 맞는 포스터를 직접 미술로 표현하는 작업으로, 직접 체험한 화판이 눈앞에서 포스터의 한 장면으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구상하였습니다. 필요한 구조물은 미리 준비하였고, 부드러운 도자기 재료를 활용하여 손으로 계절의 색을 표현하도록 하였습니다.



활동 후기

이경희 (리더예술인)

서로 분야는 다르지만 열정적이고 밸런스가 좋은 팀을 만나서 감사하고, 기업에서도 매번 예술가들이 편안하게 창작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프로그램 제작비도 지원해주시면서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라는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새로운 장르를 다루는 기업과 활동을 하게 되어서 예술가로서는 흥미로운 작업을 할 수 있었고, 기업 또한 예술성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장애인 복지사업인 <가치봄> 상영을 예술로 활동과 함께 보다 풍성한 프로그램의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모두가 서로의 작업과 성향에 대해서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고 서로 지지해 주며 어느 예술인도 소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 당일 시간이 지체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지만, 공연과 전시 모두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매우 효과적인 전달과 표현이었다는 피드백도 들으며 더욱 보람 있었습니다. 예술로 활동으로서만 아니라 예술가로서 의미미한 경험을 했으며, 앞으로의 예술활동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주는 한 해의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예술인분들, 메가박스 기업의 담당 그룹장님과 팀장님, 대전문화재단 예술로 담당자분들, 협업기업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권은경 (참여예술인)

배려와 감사함이 가득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시청각 장애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들의 언어와 소통 방법, 눈으로 듣고, 귀로 눈앞을 그리고, 몸으로 감상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 끈대인 나도 여기저기에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긍정,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많은 손길, 끝내자니 시원하지 않고 아쉬움 가득한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최선인 줄 알았는데 최고였던 메가박스 대전팀! 예~~

이보현 (참여예술인)

우리의 예술활동이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 도전하고 실험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시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와 한국점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장애와 같은 제한 조건에서 예술은 어떻게 확장되어야 할지, 세상을 향해 예술로 어떤 말을 걸어야 할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각각 다른 언어 사이에서 차이를 발견하며 언어를 매개로 작업하는 예술인으로서 특별한 영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주로 혼자 작업하다가 예술로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을 만나 함께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업한 경험 역시 신선했습니다. 예술가로서 지지받고 서로를 응원하며 자신감을 얻었고, 다양한 직간접 경험으로 제 세계도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6개월 동안 경제적 심리적 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기에 덕분에 올해 계획했던 단행본 출판과 후속 활동, 즉 개인 작업도 동시에 편안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다슬 (참여예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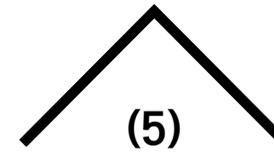
참여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내가 활동하는 댄스 분야가 아닌 다양한 타 장르 예술가분들을 만나 소통하고 협업하고 싶어서였는데 정말 기대한 것 그 이상으로 너무나 멋지고 좋은분들을 만나 의미 있는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엔 접하기 쉽지 않았던, 시각·문학·도자·국악이라는 분야를 깊게는 아니더라도 점차 알게 되었고 내가 이어나가고 있던 댄스와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합쳐질까? 하며 처음엔 그저 막연했습니다. 그러나 열정은 물론 본인의 분야에 너무나 진심이고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예술인분들과 함께하니 생각지도 못한 멋진 과정과 결과도 함께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한 작업도 큰 의미가 있었고 그것보다 더 의미 있었던 것은 서로 다른 장르이지만 예술이라는 하나의 넓은 범주 안에서 이렇게 다양하고 멋진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셨던 팀원들의 만났다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 본인의 색깔대로 빛나기도 함께 뭉쳐 하나의 밝은 빛이 되기도 했던 이번 활동. 예술로 사업에 지원하기 너무 잘했습니다. 정말 감사했고 즐거웠고 우리 팀원 예술가분들을 보며 많이 배웠습니다. 예술로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지현 (참여예술인)

메가박스 프로젝트 하면서 시청각장애인들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를 만나 함께 작업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며 생각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 뜻깊었습니다. 메가박스 또한 예술가들이 생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게 편하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항상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결코 하나의 분야,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여서 할 수 있었던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황은진 (기업 담당자)

메가 박스는 올해 처음으로 예술인 동반자사업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영화관의 기본적인 업무가 아닌 영화 콘텐츠와 연계하여 고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청각장애인분들에게 단순 영화관람뿐만 아니라 체험 활동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를 목적으로 한 만큼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아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예술인분들이 각자 분야는 다르지만 하나의 프로젝트를 위하여 협업해 나가는 과정들을 함께하며 기업에서도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5) 사단법인 대전충남생명의숲

+ 활동유형 공간디자인, 콘텐츠 기획

+ 기관소개

사람과 숲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숲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숲을 가꾸고 보전하는 환경단체입니다. 생명의 숲 가꾸기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창립해 숲의 가치를 발굴하고 숲 문화운동, 도시 숲 운동, 학교 숲 운동, 정책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숲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국 14개 지역조직이 함께 생명의 숲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예술인소개

연극 정우순 리더예술인 대전어린이청소년연극축제 등 다양한 연극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술 김진희 참여예술인 아트앤북 대표이자 시각예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 송재형 참여예술인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기타 연주곡을 만드는 기타 연주자 송나츠입니다.

연극 이우진 참여예술인 연극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술 조현하 참여예술인 섬유공예가 및 학교예술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기관의 이슈(고민)

오랜 시간 숲활동을 하면서 숲의 예술적 가치를 몸소 느끼며 더 알고 싶고, 더 찾고 싶었습니다. 활동가들에게 부족한 예술적 감성, 요소들을 전문 예술인들과 협업해 새로운 숲의 가치를 발견하고 시민들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공간의 재발견과 환경변화 활동

오래된 건물 창성빌딩에 대전충남생명의숲이 사무처, 숲 교육실, 생명 공방 등 크게 세 개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화되고 삭막하던 숲 교육실을 따뜻하고 온기가 느껴지는 공간으로의 재탄생을 위해 창문의 커튼을 제작·설치, 밋밋했던 벽에 선반 제작, 깨진 화분(토분)에 그림을 그려 재활용·전시하여 1층 출입구 게시판에 변화를 주었으며 죽은 나무가 있는 1층 입구를 정리하여 사무실 앞 로비 공간을 재탄생하였습니다.



숲 해설가 전문가과정 수료식×예술로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되는 ‘숲 해설가 전문가과정’ 수료식은 특별하였습니다. 대전충남생명의숲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로 예술인들의 협업이 요청되었습니다. 축하 리본 제작, 기념품 포장, 축하 공연, 기타 연주, 네임카드, 공간디자인 세팅, 인센스 홀더 기념품 제작 나눔, 행사 진행 도움 등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수료식 행사에 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미래의 숲 해설가와 예술가의 만남이 이루어진 수료식 행사는 의미있고 특별했으며 앞으로의 수료식 콘셉트에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캐릭터 개발과 소리북(Soribook) 프로젝트

숲과 관련된 캐릭터 ‘분이’, ‘수피아’ 두 개의 캐릭터 제작과 그 기반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소리북 ‘우리 숲을 지켜주세요!’란 제목으로 숲이 주는 힘과 에너지,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실천 등 교훈적 내용을 갖는 소리북을 제작하였습니다.



회원 숲 산책×생태정식

회원 숲 산책은 기관의 회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9월에는 예술가와 함께하는 숲 산책 프로그램으로 참여예술가들이 기획하여 ‘생태정식’이라는 프로그램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숲 속 감각놀이, 컨설팅을 통해 얻은 숲 속 만다라, 소리북 공연, 기타 연주, 새피리 체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산림살이 × 생태학교

매월 진행되는 생태학교 프로그램을 예술가만의 색채로 그리는 프로그램으로 변화를 모색하였습니다. 숲의 또 다른 이름 산림에서 예술살이와 체험을 통해 우리들 숲으로 한 발짝 나아가는 협업활동으로 '산림놀이' 프로그램명으로 기획하였습니다. 대나무 조형물 설치, 나의 숲 그리기, 소리북 '우리 숲을 지켜 주세요' 퍼포먼스, 숲 속 만다라, 기타 연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였습니다.



활동 시기

정우순 (리더예술인)

첫 달에 예술가들 간 앞의 과정을 거쳐 라포 형성, 팀명을 정하고, 주제와 목적을 설정, 기관과의 첫 간담회를 가지며 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시작이 반, 시간 가는 줄 모르게 6개월 간의 협업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쉴 새 없이 지속된 협업활동의 시작과 끝이 반복되며, 하나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술과 숲의 접점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나무가 자라듯 깨달음의 연속으로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10월은 기관과 예술가 간 자체 성과공유회를 통해 그동안의 협업활동과 성과, 아쉬운 점, 좋은 점 등을 나누었습니다. 협업활동의 시간이 부족하여 즐거움을 만끽할 수 없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안전하고, 무탈하게, 서로의 존중과 배려로 무사히 협업을 마칠 수 있었으며, 함께해 준 모든 예술가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김진희 (참여예술인)

예술로 활동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예술이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며 공감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의 숲 그리기, 만다라, 소리북, 기타 공연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감의 시간을 만들어냈으며 예술인들과 함께한 숲 해설가들 또한 이 공감과 즐거움을 모두 누렸습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자연미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잠시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힐링하면서 숲의 중요성도 알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숲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 고맙고 감사합니다.

송재형 (참여예술인)

평소에 숲을 좋아하고 자연에 대한 궁금증이 가득한 상태에서 대전충남생명의숲을 만나게 되어 설렘을 가득 안고 시작했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생명의숲에서 하는 활동을 좀 더 이해하게 되었고 숲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연을 예술이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우리의 삶에 보다 가깝게 하는 작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숲에서 만난 아이들과 숲해설 선생님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 또 함께한 예술로 동료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예술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작업을 주로 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보다 실험적인 시도를 많이 하고 싶었으나, 짜인 프로그램에 맞춰 활동을 진행한 것과 기관과의 조율이 잘 되지 않아서 계속하여 타협하며 진행했던 것이 아쉽습니다.

이우진 (참여예술인)

두 번째 예술로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모든 예술인 하나하나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이 중요하겠지만 그 누구보다 리더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업과 예술인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도 참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무언가를 제시하고 방향을 잡아나가는 리더가 없었더라면 저는 예술로 사업이 참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6개월 동안 힘써주신 리더예술인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이 협업을 진행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각자의 분야가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이 또한 리더의 조율로 원활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인연을 맺은 타 장르 예술인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또 다른 협업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 참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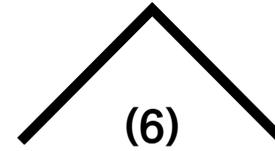
그리고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해 왔던 작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그 또한 저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의 활동 분야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아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하 (참여예술인)

올해 예술인 동반자사업에 두 번째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엔 같은 그룹의 예술인들 모두가 사업에 처음 참여한 예술인들이었다면 올해는 2~3년 차 활동을 했던 예술인들이라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좀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 그룹은 처음부터 기업의 니즈를 충족시켜 주는 활동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3가지 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실내에서만 이 아니라 숲에서 활동을 하면서 예술인들과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고, 자연과 다양한 식물에 대한 정보를 배울 수 있어서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배움의 시간을 갖게 되어 6개월이란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술인 동반자 사업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재능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5명의 다양한 달란트를 지닌 예술인들과 기관의 협조가 함께 할 때 빛이 나는 활동임을 경험하고 나니 참 매력 있는 활동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

유지현 (기관 담당자)

6개월간의 예술로 활동을 통해 예술의 힘, 협업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함께 고민해 주시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무엇이든 만들어내려 노력하시는 다섯 분의 예술인들과 함께 한 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부족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척척 제안해 주시고, 뭐라도 도움을 주시려 애써주시는 마음과 노력에 감동했습니다. 삭막하고 불품없던 네모반듯 교육실은 아기자기한 사랑방의 공간으로 변신, 새로운 시선으로 숲을 바라볼 수 있었던 9월에 진행한 '숲산책프로그램', 아이들에게 숲과 예술의 만남을 선사해 주셨던 10월의 '어린이 생태학교 산림놀이' 등 숲과 예술의 다양한 가치를 경험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해 준 좋은 기회였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다섯 분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종종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 활동유형 콘텐츠 기획, 전시 기획, 아카이빙

+ 기관소개

KAIST는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발전이라는 정부의 목표 아래 국내 최초의 연구중심 이공계 특수대학원으로 1971년 설립되었습니다. 과학기술원 설립과 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최신택 장비·우수한 교수진 및 학생을 위한 교육비 지원과 병역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처 산하 교육 기관입니다.

+ 예술인소개

미술 안현준 리더예술인 문화공간 주차의 대표이자 예술프로그램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학 김민정 참여예술인 시인으로 다양한 연령층에게 글쓰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김영진 참여예술인 빛과 인화지와 사물만으로 포토그램을 이용하는 시각예술작가입니다.

미술 김채원 참여예술인 시각예술작가로 설치·퍼포먼스·사운드 등 다양한 매체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 최정훈 참여예술인 시각미술 화가로 작품제작 및 전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기관의 이슈(고민)

예술인의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KAIST 구성원에게 새로운 예술을 향유하고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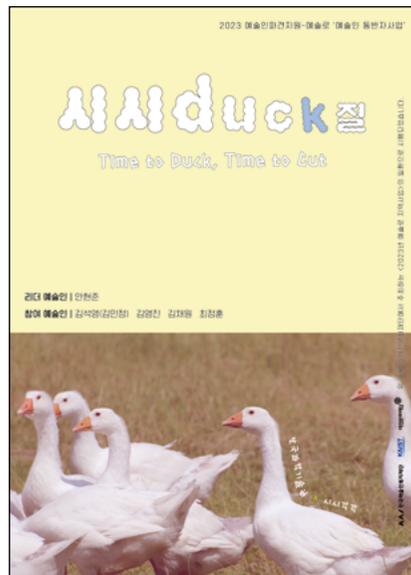
휴먼북 프로젝트 :

<시시duck질: Time to Duck, Time to Cut>



카이스트 안에서 살고 있는 '오리'와 '시시덕거리다'를 결합한 '시시duck질'! 예술가와 카이스트인이 오리처럼 시시덕(duck)거리는 자유로운 시간이라는 뜻으로, 노닥거리는 시간이 곧 시간을 '오리'는 시간이 되는 언어유희적인 활동입니다.

사람이 책이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5명의 카이스트인(학사, 석사, 박사)을 인터뷰로 참여자의 특징을 사물로 바꿔보는 새로운 형태의 프로젝트이며 e-book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사람을 책에 비유했을 때 한 사람의 인생은 스토리가 되는 것에 착안하여, 소설의 문법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고 그들의 이야기와 함께 팸아트 일러스트로 제작하였습니다.



<인터뷰 질문지>

1. 내 인생의 사건을 들려주세요.
2. 사건 이후에 이전과 변화된 점은 무엇인가요?
3. 나의 장점과 단점을 소설 속 인물처럼 설명할 수 있을까요?
4. 나의 한계를 맞닥뜨린 경험이 있나요? 그때 어떻게 행동했나요?
5. 나만의 원동력, 추동력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6. 유년 시절, 아름다웠던 최초의 기억을 들려주세요.
7.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요?
8. 지금까지 만난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경험을 들려주세요.
9. 나를 단 하나의 사물에 비유한다면 어떤 사물일까요?

기획전시_전:詩계단

오픈 스페이스의 '전시계단'을 '전:詩계단'으로 바꿈으로써 통로였던 공간이 참여의 공간이자 놀이의 장소로 확장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하였습니다.

김민정(김석영) & 김영진 - '밟으시오-엮어진 컵에서 쏟아진 글자들'

<엮어진 컵>이라는 시의 문장을 분절하여 컵에서 쏟아진 것처럼 계단에 설치한 것입니다. 관람객들은 계단과 함께 글자를 밟으면서 동시에 시를 밟는 낯선 체험을 하게 됩니다. 통로였던 공간이 상상력의 공간이자 놀이의 장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밟으시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엮어진 컵'은 김영진 작가의 작품 <섬> 시리즈의 중요한 오브제이며, 이를 다시 김민정(김석영) 시인이 시로 창작한 것입니다. 사진과 시를 결합한 이번 전시는 평면 작업에서 입체적인 물성으로의 질감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안현준 - 성장_언어이거나 형태로서

나무판의 절단시킨 면을 중첩하여 계란프라이의 형태로 표현하였습니다. 이 이미지들을 '성장'의 키워드로 재현하고 있으며 나무판의 물성과 아크릴의 빛의 투영 및 반사되는 특성을 살려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어긋나게 배열, 중첩하면서 앞뒤의 이미지들이 반복되고 동시에 변화되는 상황을 표현하였습니다. 설치 후 누군가에게는 언어로 보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형태로 보일 것입니다. 개념미술과 미니멀리즘의 모호성을 보여주는 작업입니다.





최정훈 - 휴먼북 - 카이스트 5인의 인터뷰 일러스트

카이스트 5인의 인터뷰이와 예술로 사업에 참여한 작가들이 인터뷰어로 만나 서로 소통하고 “시시덕duck질”(e-book) 프로젝트로 진행되었던 일러스트 작품입니다.

카이스트 런치콘서트

카이스트 학생들 및 임직원 대상으로 런치콘서트를 기획하였습니다. 김영진 작가의 ‘투명한 것들’ 이야기 속 포토그램 작품세계를 공유하며 현대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협업활동이 끝난 이후에 예술인들은 일정조율을 통해 런치콘서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활동 수기

안현준 (리더예술인)

평소 인문과 시각예술의 융복합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민정 시인을 만나 시와 소설의 감정선과 멋진 세계의 매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김영진 작가의 새로운 시각과 도전, 신비로운 작품세계를 직접 현장에서 볼 수 있었으며, 김채원 작가의 영상작업과 편집, 독특하고 멋진 퍼포먼스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최정훈 작가는 휴먼북 프로젝트에 참여한 카이스트인들의 인생 이야기를 팝아트 일러스트로 멋지게 표현해 생동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6개월간의 협업활동을 수행하면서 기관과 예술가들의 니즈를 도출하여 함께 교감하고 소통하며 지속가능성을 열어 두었다는 부분에 의미를 더하고 싶습니다.

김민정 (참여예술인)

우리 팀 ‘시시각각’은 사진, 조각, 시, 회화, 설치미술을 전공한 5인 5색 예술가들의 모임으로 카이스트라는 첨단과학의 중심지에서 예술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시시덕(duck)질’ 인터뷰 및 ‘전시(詩)계단’으로 이어지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팀원들과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머릿속의 상상력을 시각적으로 구현해 내는 협업활동은 진행 과정 자체로 충분히 신선하고 자극적인 공부가 되었습니다. 문자매체와 시각매체의 협업으로 재미있고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 기쁩니다. 예술이 함께하는 놀이로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술의 가치를 나누고 배워가는 성장의 시간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김영진 (참여예술인)

지난 6개월 동안 예술로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팀으로 만나게 된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을 알게 되어 좋았고, 각자의 장점들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학생들과의 ‘휴먼북 프로젝트’를 통해 나와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지점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예술이 가진 역할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합니다. 이번 예술로를 통해 예술로 소통하는 법을 알게 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김채원 (참여예술인)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을 만나 새로웠고 기업과 함께 일하며 평소 해당 기업과 만날 일이 없었는데 이번 파견 사업을 통해 기업과의 협업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타 장르의 지식을 알게 되어 새로웠습니다.

최정훈 (참여예술인)

올해 예술인 동반자 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분들과 함께 카이스트와 협업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평소 글과 문학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예술로 협업을 하면서 함께 팀이 된 시인 김민정 작가님을 만나 시와 소설의 묘하고 매력 있는 멋진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6개월간 예술인 동반자 사업-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예술가분들과 카이스트 관계자분들 사이에서 생각 및 감정의 조율과 균형, 점검 및 프로젝트 전체의 진행을 탄력있고 추진력 있게 이끈 안현준 작가에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예술로 협업활동을 하면서 기업이 원하는 부분과 예술가들이 원하는 부분을 함께 공유하고, 협력하며 성장한다는 의미를 더욱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손성은 (기관 담당자)

협업 프로그램 과정에서 예술인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 덕분에 휴먼북 프로젝트, 기획 전시, 토크콘서트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진행하며 KAIST 학생들에게 다양한 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

대전 예술인 파견지원-예술로

예술인 동반자사업 결과자료집

본 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3 예술로 지역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최 대전문화재단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대전광역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전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대전광역시
DAEJEON METROPOLITAN CITY

 한국예술인복지재단

